

- 예술을 품은 독서 -

# 명작[화가]와 함께하는 책이야기



## 이 자료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께

- 이 자료는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제공하는 독서수업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특정 도서나 작가 홍보가 아닌 독서수업을 어떻게 다양하게 기획하고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예시자료임.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2020년 5~6학년 학생 대상 어린왕자 편 10차시, 2021년 3~4학년 학생 대상 안데르센 편 8차시, 2022년에는 1~2학년 학생 대상 이솝우화 편 8차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이번 2023학년도에는 영화와 함께하는 책 이야기로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 이야기 자료, 학습지, 만들기 영상 등을 독서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가 선생님들의 새로운 연구 개발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연구자이며 개발자입니다.

2023. 8.

경기도교육청 독서교육정책실 행연구회

## 목 차

Chapter 01 자연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 ..... 1

Chapter 02 세상을 점으로 그린 화가 조르주 쇠라 ..... 13

Chapter 03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 ..... 25

Chapter 04 당당히 자신의 삶을 걸어간 화가 신사임당 37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Chapter 01

# 자연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1. 독서를 사랑하는 어린이 곤충 박사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쾨데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모르는 곤충이 없는 곤충 박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책읽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독서광이어서 문학작품을 밤새 읽곤 했었습니다.

고흐는 기숙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여 프랑스어와 영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4개 국어를 하다니! 어릴 때 책을 좋아했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흐가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화가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2. 성공이 보장된 길을 포기한 젊은이

6살 때 고흐는 파리로 가서 큰아버지의 회사 ‘구필 화랑’에 취직하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성공한 화상이었습니다. 화상이란 화가에게 그림을 사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고흐는 구필 화랑에서 화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고흐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고흐는 구필 화랑의 영국 지점 확장을 위해 런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사치스럽게 미술품을 팔고 있네.’

그는 괴로워하다가 결국 구필 화랑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 3. 곳곳을 떠도는 가난한 화가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 광부 등의 직업을 거치며 오랜 방황 끝에 화가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부자의 취미를 위한 그림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진실된 삶을 그리고 싶어.’ 그는 처음엔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고 성격도 예민해서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형을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동생 테오가 있었습니다. 테오는 형을 끝까지 돌보고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평생 둘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둘의 우애와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이 아름다운 문장에 담겨있습니다. ‘고흐의 편지’는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고흐는 벨기에의 브뤼셀로 가서 화가 모베에게 그림을 배웠지만 모베와 잘 맞지 않아서 네덜란드의 니암스테르담이라는 시골로 갔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아 시골의 순수한 자연을 그리면서 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동생이 미국으로 가서 자신의 화랑을 열고 싶다고 하자 고희는 뇌넨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 동생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희가 못마땅했습니다. 고희는 아버지 집 헛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바라보던 동생 테오는 미국행을 포기하고 형을 계속 돕기로 하였습니다.



#### 〈감자를 먹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뇌넨 시절 고희의 명작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혹평을 했습니다. 모델도 색채도 모두 예쁘지가 않아서 였을까요?

고흐는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곧 싫증을 느껴 프랑스의 시골 아를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작은 집을 얻어 ‘노란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동료 화가 고갱과 함께 살았어요.



#### 〈고흐의 방〉

아를에서 살았을 때 고희는 자신의 방을 그렸습니다. 고희는 가구도 몇 개밖에 없는 소박한 방을 자신이 그린 자화상과 해바라기 그림으로 꾸몄습니다. 고희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고희와 고갱 두 사람은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서 고희는 결국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 4. 마음의 병을 얻으면서 탄생한 명작들

고흐는 아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에 불만이 많아져서 테오는 형이 편하게 그림을 그리며 지낼만한 생레미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에서 고희는 미술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여러 개 남겼습니다.





#### 〈별이 빛나는 밤〉

고흐가 생레미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느꼈던 괴로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소용돌이를 치고 삼나무는 불꽃처럼 꿈틀거립니다.

생레미의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자 테오는 파리에서 가까운 시골 오베르로 형을 보내주었습니다. 고흐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밀밭과 자연 풍경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곤충을 관찰하던 소년은 어느새 자연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 〈까마귀가 나는 밀밭〉

프랑스 시골 마을 오베르의 노랗게 익은 밀밭 위로 날아가는 까마귀 떼를 고흐는 힘찬 붓놀림으로 담았습니다.

고흐는 오베르에서 가세 박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가세 박사는 고흐의 그림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고흐는 박사에게 종종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나중에 가세 박사가 가진 고흐의 그림 중 10점은 가격이 10억 달러, 무려 1조 27억 이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가난한 무명 화가를 알아본 의사 선생님의 후손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 〈가세 박사의 초상〉

해군 모자를 쓴 가세 박사 그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두 개 모두 고흐가 그린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 5. 죽은 후에 작품성을 인정받은 위대한 화가

고흐는 쇠약해진 몸과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1890년 7월 29일, 37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테오는 형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나 병에 깊어져 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고흐는 실패한 화가였지만 죽은 후에 인상파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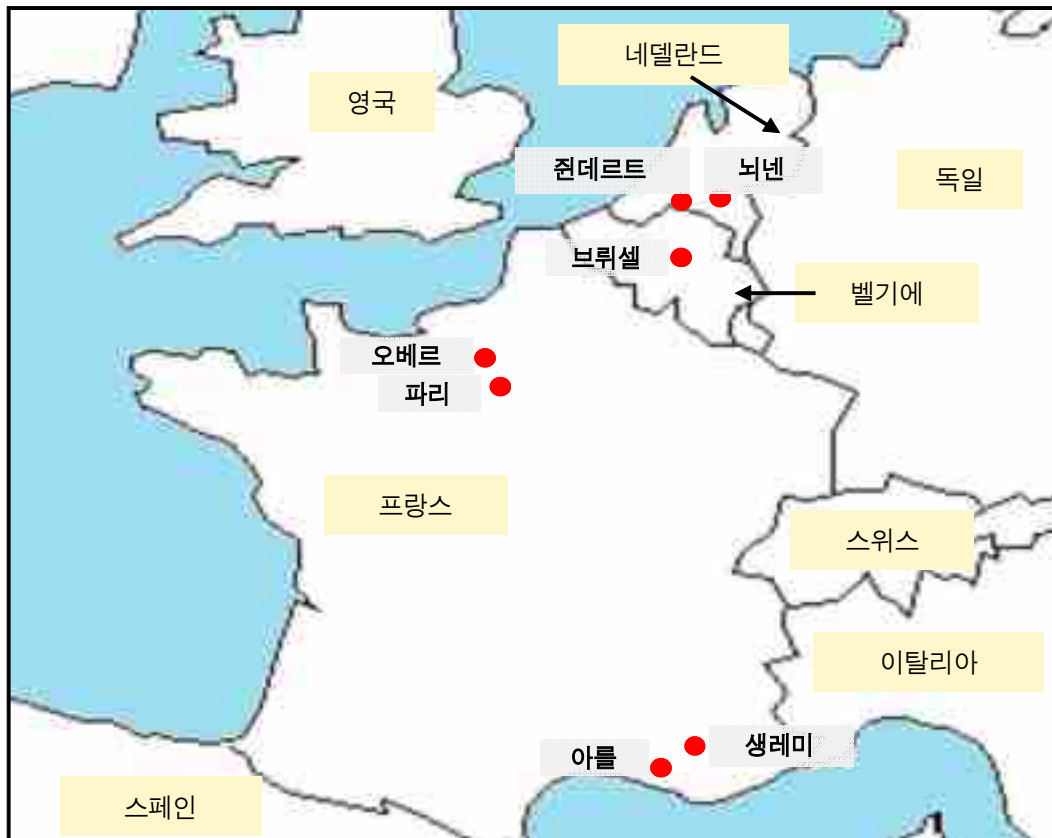
### <고흐 형제의 무덤>

고흐가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프랑스의 오베르 마을에 두 형제가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덤을 찾아 고인이 좋아하던 해바라기를 놓고 갑니다.



## 함께 알아보시다.

1. 친구와 함께 읽기 자료에서 고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주요 도시 이름을 찾아 순서에 맞게 화살표로 연결해 보세요.
2. 고흐가 아래 작품을 그렸던 도시를 찾아 작품과 도시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3. 고흐는 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을까요? 고흐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

4. 우리 반 혹은 내 주변에 고흐같은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

### 고흐의 방을 꾸며 봅시다.

1. 고흐가 아를에서 살 때 그린 ‘고흐의 방’ 그림을 찾아봅니다.
2. 입체 카드를 오려서 고흐의 방 입체 카드를 세웁니다.
3. 가구와 액자 그림을 오려서 마음에 드는 곳에 붙이거나 배치합니다.
4. 고흐의 방 원작과 내가 꾸민 방이 달라도 됩니다.
5. 침대의 색깔 등은 자신이 마음대로 색칠하여 배치해 주세요.

#### 만드는 방법 영상보기



※ 고흐의 작품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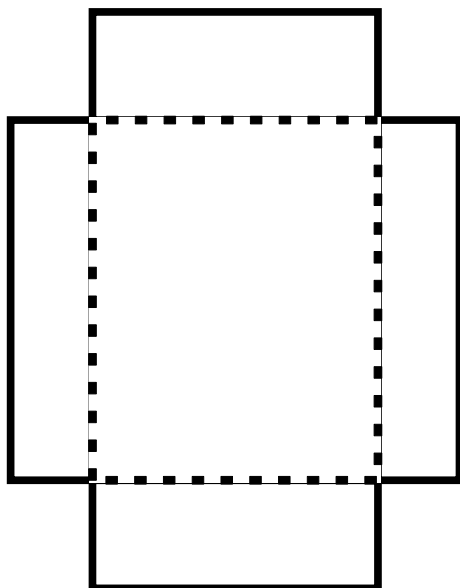
#### 만드는 방법 영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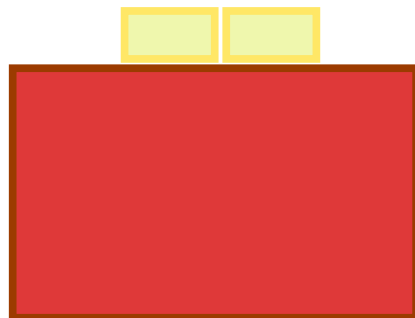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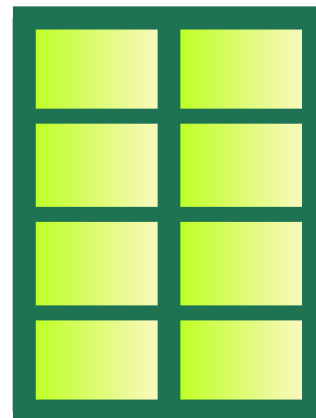
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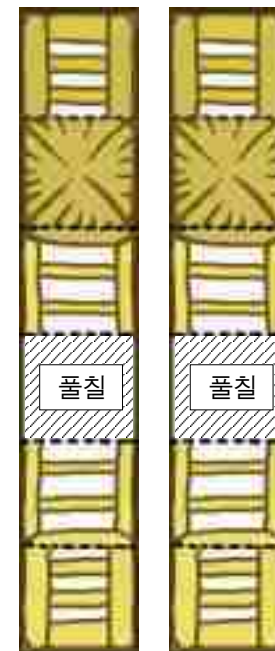
베개와 이불



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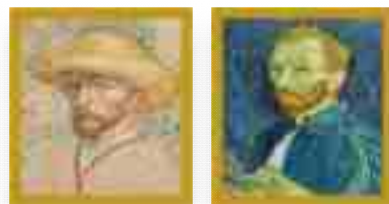
의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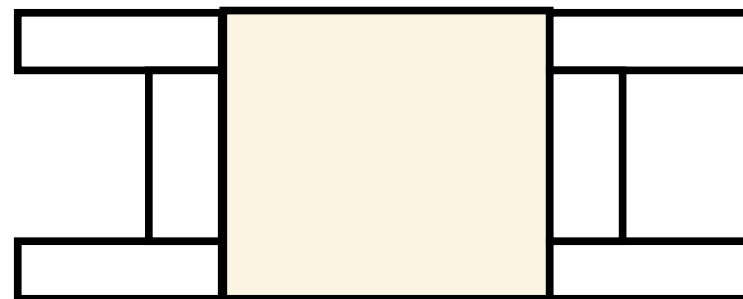
거울



그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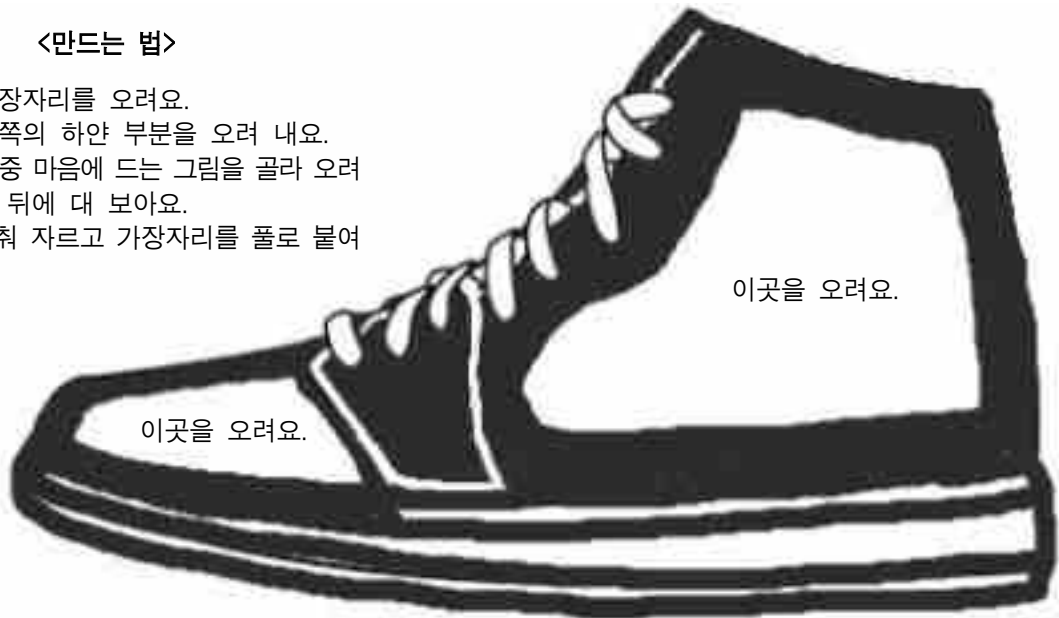
탁자



고흐의 작품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을 아름답게 꾸며 봅시다.

<만드는 법>

1. 운동화 가장자리를 오려요.
2. 앞쪽과 옆쪽의 하얀 부분을 오려 내요.
3. 아래 그림 중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오려 낸 부분의 뒤에 대 보아요.
4. 모양에 맞춰 자르고 가장자리를 풀로 붙여 완성!



♠ 이 밖에도 우산, 넥타이, 스카프, 티셔츠 등에 고흐의 그림을 넣어 디자인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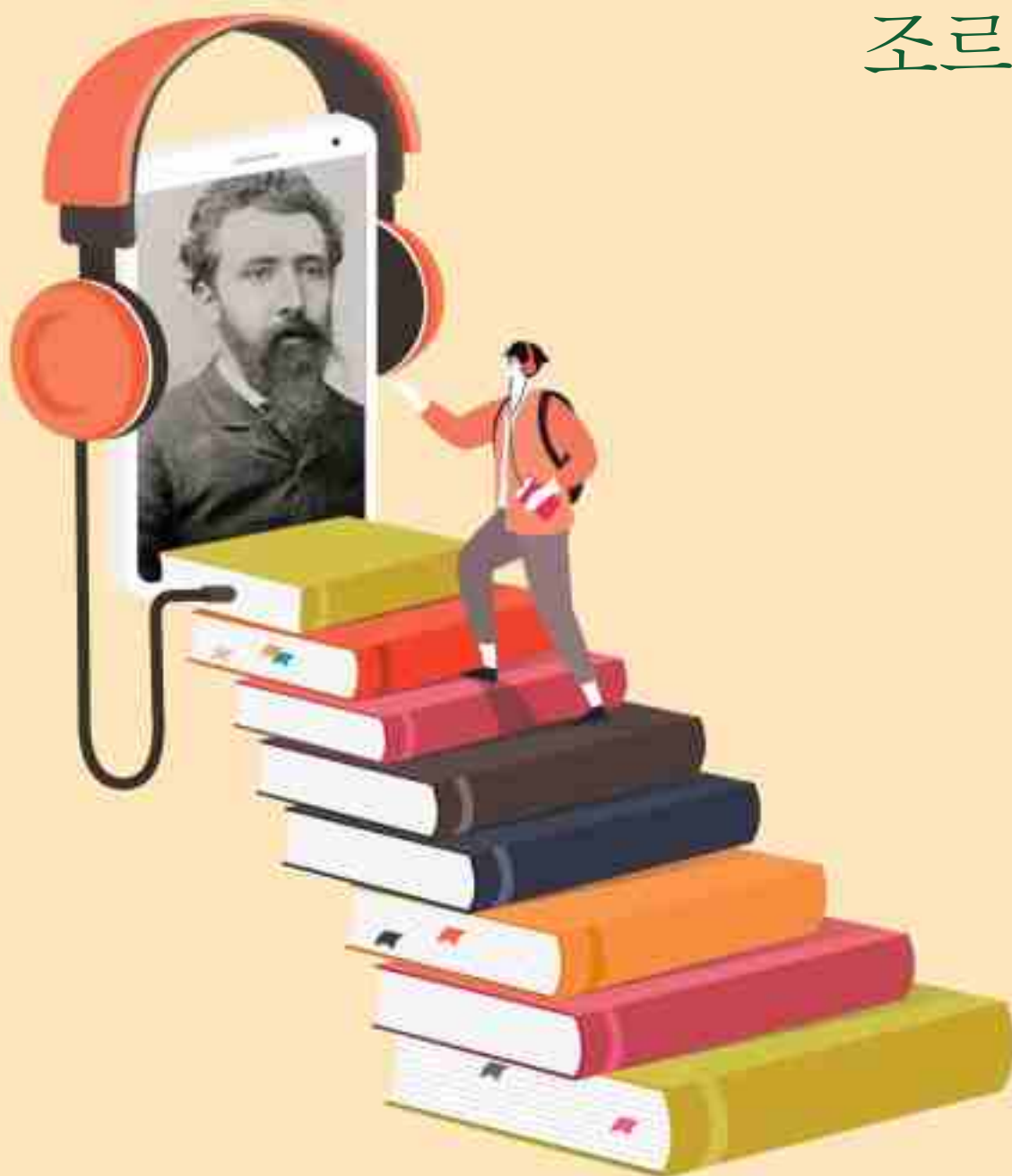






## Chapter 02

# 세상을 점으로 그린 화가 조르주 쇠라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1. 부잣집 아들의 자유로운 꿈

조르주 쇠라는 185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쇠라네는 대대로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집안이었고, 아버지 앙투안 쇠라는 법무부의 높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Born with a silver spoon’이라는 서양 속담이 어울릴 정도로 모자람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쇠라는 천재 예술가들에 대해 갖기 쉬운 고정관념인 가난, 반항, 불안함, 괴팍함, 허름한 옷차림 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으며, 부모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인 또는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화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조르주,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렴.”

쇠라는 어릴 때부터 책읽기와 그림을 좋아해서 16살 때 조각가인 르키앙 선생님에게 그림을 배웠고, 19살에는 파리 프랑스 국립 미술학교에 당당히 합격하였답니다.



<풀 베기>



<두 개의 해안>

쇠라가 스물네 살 때 그린 그림들입니다. 후기의 그림들과는 달라보입니다.

## 2. 내 그림은 예선 탈락

당시 프랑스에는 ‘프랑스 미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랑스 예술가 미술전’이라는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2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회는 화가들이 출품한 미술 작품을 심사하여 통과한 작품을 전시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뽑아 상을 주었습니다. 이 상을 받은 화가는 권위 있는 화가들이 엄격히 심사하는 대회에서 상을 받은 작가라고 소문이 나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쇠라도 스물다섯 살 때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거절당했습니다. 미술전에서 상을 받기는커녕 작품을 전시할 기회도 얻지 못했지요.

### 3. 우리 젊은 화가들끼리 미술전을 새로 만듭시다!

‘프랑스 예술가 미술전’은 엄청난 권위의 미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거절당한 쇠라는 다시는 대회에 문을 두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우리 젊은 화가들끼리 모여 우리들의 미술전을 따로 만들어 보자.’

쇠라는 뜻을 함께하는 젊은 화가들과 힘을 합해 원래 있던 협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가진 ‘독립예술가협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술전인 ‘앙데팡당 미술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앙데팡당’=‘indpendants’은 프랑스어로 독립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죠? 같은 철자와 의미를 가진 영어도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그림을 전시하고 사람들의 평을 듣고 싶은 화가들은 다 모이세요. 우리 미술대회는 심사도 없고, 상을 주는 것도 없어요! 누구나 참가비만 내면 됩니다!”

1884년 5월, 파리의 한 임시 건물에 화가들이 그림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당시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젊은 화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

쇠라는 프랑스 예술가 미술전에 거절당한 이 작품을 제1회 앙데팡당 미술전에 전시하였습니다.

이전 그의 작품과 달리 대상을 선이나 면이 아닌 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앙데팡당 미술전은 1800년대의 끝자락에서 미술계의 커다란 변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전통에 쫓겨 묶이지 않고 작가가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을 전시할 수 있었으며, 높은 심사위원이 아닌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과 동료 화가들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그림 좋다. 누가 그린 건가?”

“그 그림이 왜 좋다는 겁니까?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소.”

앙데팡당 미술전에 헨리 루소,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빈센트 반 고흐, 마르크 샤갈, 모딜리아니 등 미술사에 길이 남는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그밖에도 수많은 화가들이 앙데팡당 미술전을 통해 현대 미술계에서 크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 4. 점묘법을 개발하다.

쇠라는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점묘법을 생각해 냈어요.

‘모든 형태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수학에서는 점이 움직이면 선을 이루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만들어지고, 면이 움직이면 부피가 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기본은 작은 점이라고 생각한 쇠라의 관찰은 매우 과학적인 것이었죠. 점으로 묘사하는 그리기 방법, 그래서 이것을 점묘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점묘법은 모든 모양과 색을 쪼개고 쪼개서 그리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분할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랜 옛날에도 조각을 이어 붙여서 큰 그림을 표현하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나 중세 유럽의 ‘모자이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쇠라는 모자이크처럼 약간 큰 조각이 아닌 작은 점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 〈유스티아누스 1세의 행렬〉

지금부터 약 1470년 전 즈음에 만들어진 고대 로마의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작은 조각을 이어붙여 커다란 형태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모자이크 기법은 지금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일 무늬나 십자수 그림도 모자이크지요.



## 5. 점묘법으로 그림을 그린 까닭

쇠라는 그림을 그릴 때, 모양의 정확성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색채’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연의 색들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골몰했어요. 그래서 색채에 대해 발표되는 과학 논문을 빠짐없이 찾아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그림을 끝없이 연구하였답니다. 예술가는 책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마음껏 창조하는 것이라는 인식과는 조금 다른 화가였지요.

‘저 색깔을 똑같이 만들려면 두세 가지 이상 물감을 섞어야 해. 그런데 그렇게 섞으면 색깔이 탁해져. 그러니까 물감을 되도록 섞지 말고 작은 점으로 표현해야만 해.’

쇠라는 색깔을 섞지 않고 맑게 표현하기 위해 점묘법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 6. 완벽주의자 화가의 커다란 도전

쇠라는 점묘법으로 커다랗고 멋진 그림을 그려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가 그리고 싶은 것은 햇살이 쏟아지는 자연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랑드자트섬을 다니며 무려 60장 이상의 그림을 연습 삼아 그렸습니다. 어느 날에는 배경만 그리고, 어느 날에는 사람들도 그렸지요. 이 모든 그림은 붓으로 한 번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점을 일일이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심한 관찰자이며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준비를 이렇게나 철저하게 하였답니다.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공원의 햇살을 담은 풍경을 일일이 작은 점으로 찍어 표현한 이 그림은 크기가 308cm × 207cm에 이르는 대작입니다.

쇠라는 1884년부터 1886년까지 2년 동안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각각의 색을 지닌 작은 점들이 무수히 박혀서 부드럽고



온화한, 너무나 맑고 순수한 느낌의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맑은 물, 햇빛을 받은 풀밭의 그늘, 나뭇잎의 다양한 색감에 매료되었습니다. 미술 작품을 이토록 과학적인 연구로 이루어낸 것에 대한 감탄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졌고, 이 작품을 통해 쇠라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 7.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갑작스런 죽음

1891년 3월 29일, 쇠라는 만 서른한 살의 젊은 나이로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그림이 예술계의 관심을 받게 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쇠라가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너무 열심히 그리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쇠라는 회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작품을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현대의 회화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1. 쇠라는 '프랑스 예술가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했다가 전시를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쇠라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10px; width: 250px;"> <p style="text-align: center;">&lt;거절당했을 때의 기분&gt;</p> <p>-----</p> <p>-----</p> <p>-----</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ackground-color: #e1f5fe; padding: 10px; width: 25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쇠라가 한 행동&gt;</p> <p>-----</p> <p>-----</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10px; width: 25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나의 행동&gt;</p> <p>-----</p> <p>-----</p> </div>
--	---	---

2. 아래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색칠해 봅시다.

		
색연필이나 수채물감을 이용하여 색칠한 모습	실제 모습	싸인펜을 이용하여 점묘법으로 표현한 모습

3. 쇠라의 점묘법이 일반적인 색칠법과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써봅시다.  
어떤 방법이 더 완성하기 힘들었나요? 어떤 방법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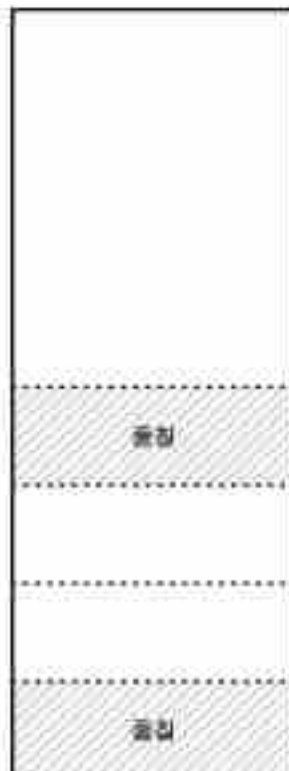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입체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1. 쇠라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림을 찾아봅니다.
2. 배경 카드를 오려서 풀칠하여 입체로 만들어 세우세요.
3. 등장인물을 오려서 입체로 만든 후 카드에 적절히 배치하고 풀로 붙여주세요.
4. 원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입체 카드에 넣고 싶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물 등을 그려서 붙여주세요.  
(조르주 쇠라처럼 점묘화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만드는 방법 영상보기













## Chapter 03

#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1. 안산시 단원구를 아시나요?

안산시에는 ‘단원구’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2002년 새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옛 우리나라 조선의 화가 김홍도의 호 ‘단원’을 행정구역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세계에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의 이름을 딴 장소나 시설 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충무로나 퇴계로, 외국의 케네디 공항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예술인들의 꿈의 무대라는 카네기 홀, 그리고 도시 이름 호치민시도 있지요.

안산시는 왜 김홍도의 호를 구 이름으로 한 것일까요? 김홍도가 안산시 단원구에서 태어나서 단원구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도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산 성포리에서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덟 살 때부터 스무 살 초반까지 안산에서 그림 공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김홍도의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 정부 기관인 문화관광부에서 안산을 ‘단원의 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안산시에서는 ‘옳다구나, 멋지다!’ 하면서 ‘단원구’라는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단원미술관’ ‘단원미술제’ 등 김홍도의 호를 넣은 시설이나 사업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김홍도 도시 안산〉

안산시 단원미술관의 김홍도 상설 전시 안내 포스터와 단원예술제의 모습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 2. 뛰어난 선생님을 만난 행운의 꼬마 소년

김홍도는 지금부터 약 280년 전인 1745년 김해 김씨의 한 집안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조선의 뛰어난 학자이자 시인, 화가인 강세황이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세황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천재 시인이라고 불리었으며, 아버지도 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역적으로 모함을 받게 되어 큰형이 귀양을 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강세황은 낙심하여 부인의 고향인 안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나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런데 강세황은 안산에서 놀라운 재능이 있는 여덟 살짜리 한 꼬마를 만났고, 그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자세한 사연은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시대 미술계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천재를 가르치게 된 강세황과 뛰어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김홍도,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김홍도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우리, 누가 가장 행운일까요?



#### 〈강세황의 초상〉

한 꼬마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직접 글과 그림을 가르친 강세황의 초상화입니다.

마른 얼굴, 눈 사이의 세로 주름, 우뚝한 긴 코, 동그란 눈으로 앞을 또렷이 응시하며 관복을 입고 단정히 앉은 그의 모습은 뚜렷한 주관과 자존심을 가진 조선 양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 초상화는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스승 강세황은 김홍도를 언제나 극찬했습니다.

“김홍도는 신이 내린 화가이다. 다른 화가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고, 다 잘 하지는 못하는데 김홍도는 못 하는 것이 없다. 김홍도는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 3. 스승님이 제자에게 달아준 날개

강세황이 안산으로 온 지 한참이 지난 후, 그의 집안의 억울한 누명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강세황에게 벼슬을 내리며 나라의 일을 돌보도록 했지요. 그러자 강세황은 김홍도를 ‘도화서’에서 일할 수 있게 임금님에게 추천하였습니다. 도화서는 왕실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라에서 뛰어난 화가들을 모아 놓은 기관이었어요. 도화서에서의 화가를 ‘화원’이라고 하였는데 화원들은 지도나 건물의 벽화, 궁궐의 방의 그림이나 병풍,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는 그림 등을 도맡아 그렸습니다.

김홍도는 스무 살 정도에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스물아홉 살에 화원의 최고 영광인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어용화사’에 뽑혔습니다. 그의 재능이 날개를 단 것입니다.

#### 4. 정조 임금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화원

‘김홍도는 신윤복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민속화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민속화만 그린 것이 아니라 강세황의 말대로 못 그리는 그림이 없었어요.

산수화는 물론이고, 사실과 똑같이 그리는 인물화나 기록화, 불교의 탕화까지도 잘 그렸지요.

〈송하맹호도〉



제자 김홍도가 호랑이를, 스승 강세황이 소나무를 그린 합작품입니다.  
털 한 올 한 올을 사실적으로 그려 뛰어난 명작으로 꼽힙니다.

〈규장각도〉



정조 임금님은 왕위에 오른 후, 나라의 도서관인 규장각을 짓고 김홍도에게 명령하여 그 모습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그런 김홍도를 무척 아꼈습니다. 김홍도에게 금강산과 동해안 등을 돌아다니며 산수화를 그려오라고 하고, 대마도에 보내 일본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지은 절인 수원 용주사에 불화 작업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어머니를 위해 지은 화성을 그리도록 하는 등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김홍도에게 맡겼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김홍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김홍도는 그림에 남달리 재주가 있는 자이다. 나는 그를 오래전에 알게 되었다. 그는 삼십 년 전 나의 초상을 그렸다. 그 후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모두 그에게 맡겼다.”

### 〈군선도〉



김홍도가 서른두 살 때 그린 병풍입니다. 신선들이 어린 동자를 데리고 잔칫집에 가는 장면을 즐겁고 씩씩한 분위기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국보 제139호입니다.

## 5. 백성들에게도 인기 폭발, 스타 화가는 괴로워.

김홍도가 궁에서 매일 먹고 자는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민가에 나와서 머무를 때면 사람들이 몰려와 그림 하나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는 잠자고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그림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서유구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홍도가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그의 그림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턱이 빠질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가 양반이 아닌 중인 출신이어서였을까요? 그는 공부를 못 해서 훈장님께 혼나고 우는 아이, 씨름판에서 엿을 파는 아이, 다들 옷통을 벗어 젖히고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한가롭게 누워 이를 바라보고 있는 양반 나으리 등 양반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 〈풍속도 화첩〉



우리나라 보물 제527호인 〈풍속도 화첩〉에는 김홍도가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따뜻한 시각으로 유쾌하게 담아낸 풍속화 25점이 담겨 있습니다.

## 6. 가난한 인생의 황혼길

김홍도는 궁중의 그림을 그리는 화원 중에서도 어용화사를 지낼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고, 풍속화가로서 인기도 온 나라에 떨쳤지만 돈을 모으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는 종이와 물감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는 정조임금이 죽은 후에 화원을 그만두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김홍도의 **씨름**을 자세히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어느 계절에 일어난 일을 그린 것일까요?

답: \_\_\_\_\_ 이유: \_\_\_\_\_

2. 그림에서 인물을 찾아 점과 인물을 줄로 연결해 보세요.



• 이길 것 같은 사람

이유: \_\_\_\_\_

• 시합에 관심 없는 사람

이유: \_\_\_\_\_

• 다음 시합에 나가는 사람

이유: \_\_\_\_\_

3. 등장인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컷 만화로 꾸며봅시다.

- 아래 그림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오린 후, 네모 안에 붙이세요.

- 빈 공간에 말풍선을 그리거나 글밥이나 대사를 써넣어 완성합니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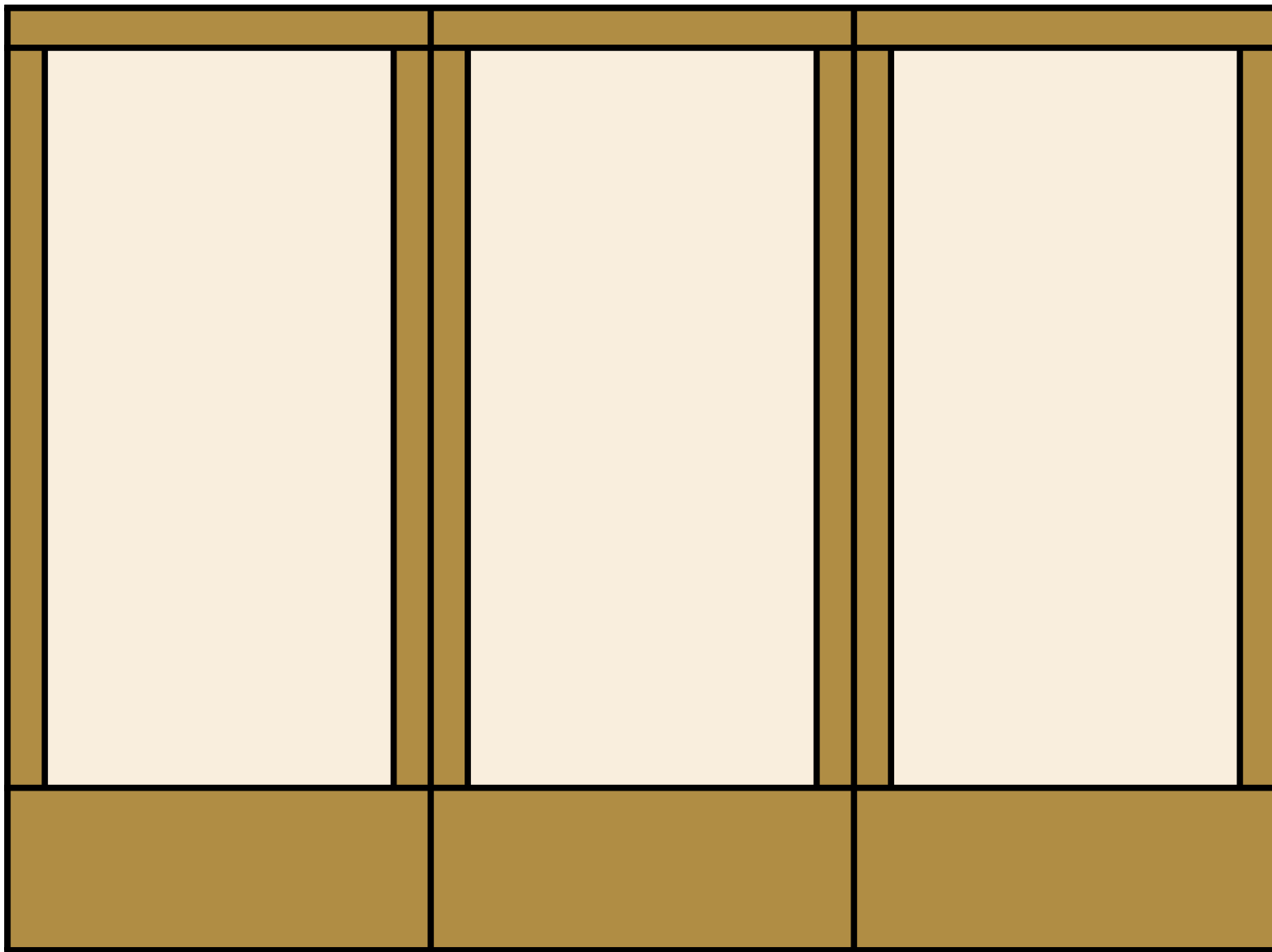
김홍도와 나의 합작품으로 6폭 병풍을 만들어 봅시다.

1.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6점 고릅니다.
2. 그림을 오려서 병풍에 붙여주세요.
3. 남은 공간에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을 짧은 글로 써넣어주세요.  
(글은 세로로 쓰는 것이 더욱 멋스럽습니다.)
4. 병풍을 오려 두꺼운 종이에 나란히 붙이고 계단 모양으로 접어 세우면 완성!

만드는 방법 영상보기











## Chapter 04

# 당당히 자신의 삶을 걸어간 화가 신사임당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 1. 딸만 다섯! 딸부잣집 둘째 딸

신사임당은 조선 중종임금 시절인 1504년, 강원도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라는 오래된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릉 오죽헌〉



‘오죽헌’은 ‘검은 대나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뒤로 검은 대나무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사임당은 이 집에서 태어났으며, 자신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 이사온의 집이었어요,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죠.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남자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곳에서 신사임당은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 2. 신사임당은 이름이 사임당인가?

조선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끼리도 별명을 불렀답니다. 그 별명을 ‘호’라고 합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저마다 호가 있었어요. 명필 김정희의 호는 ‘추사’이고 유학자 이황의 호는 ‘퇴계’지요.

어릴 때만 부르는 ‘아호’도 있었는데 아기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아호를 천하게 지어 부르기도 했답니다. 고종임금님의 아호가 ‘개똥이’, 황희 정승의 아호는 ‘도야지’였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머무는 거처를 별명으로 쓰는 ‘당호’도 있었어요. ‘~당, ~현, ~재’와 같이 지은 별명은 모두 당호라고 하였습니다. ‘당’은 사람이 머무는 집이나 건물을 말해요. 당호를 썼던 유명한 사람들은 여유당 정약용, 만취당 권율, 망우당 곽재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여자들의 본명이 문서에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난설헌 허씨, 사임당 신씨 등과 같이 성만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임당은 열세 살 때 호를 스스로 지었다고 해요. 사임당 또한 정식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사임당 신씨’ 혹은 ‘신사임당’이라고 부릅니다.

### 3. 딸들아, 여자도 배워야 한단다.

조선 중기에는 결혼한 남자가 아내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가가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장인의 집에 가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풍습이 남긴 말이라고 해요. 사임당의 어머니 또한 친정집 오죽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과거 공부를 위해서 한양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한양과 강릉을 오가며 지내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사임당은 외가에서 학자인 외할아버지로부터 한자와 한학의 경전을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바느질과 자수를 배우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신명화라는 이름의 선비였어요. 대대로 성균관 대사성, 영월군수 등을 지낸 양반가의 자식이었지요.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딸들에게 배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여자라서 서러움을 받으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들을 만나러 강릉에 갈 때마다 배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자는 더욱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글과 학문을 익혀야 한다!”

사임당은 네 살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사임당에게 더없이 좋은 스승님이셨습니다. 사임당은 어린 나이에도 글자와 글을 잘 외우고, 시를 멋지게 지어내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점차 자라면서 유교의 경전과 좋은 책들을 두루 읽어 학식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사임당이 어머니의 자수를 훔쳐 낸 것을 보았어요.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외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임당에게 세종 시대 최고의 화가 안견의 산수화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사임당이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렸는데 그 솜씨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신사임당은 직접 금강산에 그림을 그리러 간 적도 있을 정도로 그림에 몰두하여 재능을 주변에 떨쳤습니다. 특히 산수화와 포도, 대나무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원추리꽃과 패랭이꽃〉



〈풀과 벌레〉



사임당은 산수화를 잘 그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쉽게도 남아 있는 작품이 없습니다.

풀과 벌레를 그린 '초충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임당의 낙관(도장)이 찍힌 것이 별로 없어서 진짜 사임당 그림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4.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폐에 새겨진 여성

우리나라 오만원권 지폐를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화폐 인물 중 유일하게 여성인 분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 이전에는 동전이나 지폐를 막론하고 모든 화폐에 남자 위인들만 있었죠.

2009년 우리나라는 오만원권 지폐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화폐에 들어갈 인물로 신사임당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 두 점을 함께 도안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폐에 여성을 넣는다면 신사임당보다는 유관순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 어린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열띤 논의 끝에 신사임당이 새 화폐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목포도도〉



〈초충도수병(가지)〉



우리나라 오만원권에서 위의 두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목포도도’는 사임당의 그림 중 대표작입니다. ‘초충도수병’은 풀과 곤충을 수를 놓아 만든 병풍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비단에 색색의 실로 수를 놓은 8점의 자수 작품을 병풍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보물 제 59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포도 그림이 매우 유행했는데 사임당은 산수와 포도를 아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어숙권이라는 학자는 어린 신사임당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며



‘패관잡기’라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임당의 포도와 산수 그림은 절묘하다.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전 다음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자의 그림이라고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나무랄 수 있겠는가.”

## 5.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을까?

당시에는 여자아이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고 집안일을 배우다가 남자에게 시집가서 남편을 도우며 아이를 잘 키우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가장 아끼는 둘째 딸의 결혼에 대해 고민이 깊었습니다.

‘내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학문과 예술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때, 아버지 신명화의 눈에 들어온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경기도 파주 출신의 ‘이원수’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이원수는 양반가의 자손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온화하여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신명화가 사윗감을 고를 줄 모른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높은 벼슬을 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사임당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재능을 키워주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원수를 열여덟 살의 딸 사임당과 결혼시켰어요. 신사임당은 결혼 후에도 외가인 오죽헌에 한참을 머물렀어요. 남편 이원수는 파주와 강릉을 오가며 과거 공부를 하였지요.

## 6. 비단 치마에 그린 그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느 날 잔칫집에서 신사임당은 울상이 되어버린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집 하인이 국을 나르다가 그 여인의 치마에 국을 쏟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가난하여 남의 치마를 빌려 입고 왔는데 치마에 얼룩이 묻어버렸으니 치마값을 물어줄 생각에 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신사임당이 말했습니다.

“부인, 치마를 잠깐 벗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어른, 죄송하지만 붓과 먹을 준비해 주십시오.”

신사임당은 치마폭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솜씨가 어찌나 훌륭했던지 어느덧 평범했던 치마는 몇 배의 가치를 지닌 멋진 치마가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여인에게 시장에 가서 치마를 팔아 새 치마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 7. 어린 자녀 여덟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다.

사임당은 이원수와의 사이에 여덟 자녀를 두고 병을 얻어 마흔일곱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이, 문인화가 이우와 이매창 등 조선의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훗날 조선 시대의 학자들과 숙종임금님까지도 그녀의 그림에 감상문을 쓰게 되면서 후세에 더욱 이름을 떨쳤습니다.





##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결혼할 사람의 조건에 대하여 빈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결혼할 사람의 조건	이유
신명화의 생각		
나의 생각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화폐를 조사해 봅시다.

	동전			지폐			
종류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
앞면	버이삭 오십원		학 오백원			세종대왕 훈민정음 일월오봉도	
뒷면		100					

3. 우리나라의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면 누구를 모델로 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인물	이유

4. 내가 선택한 인물의 모습을 담아 지폐와 신용카드를 도안해 봅시다.

<지폐>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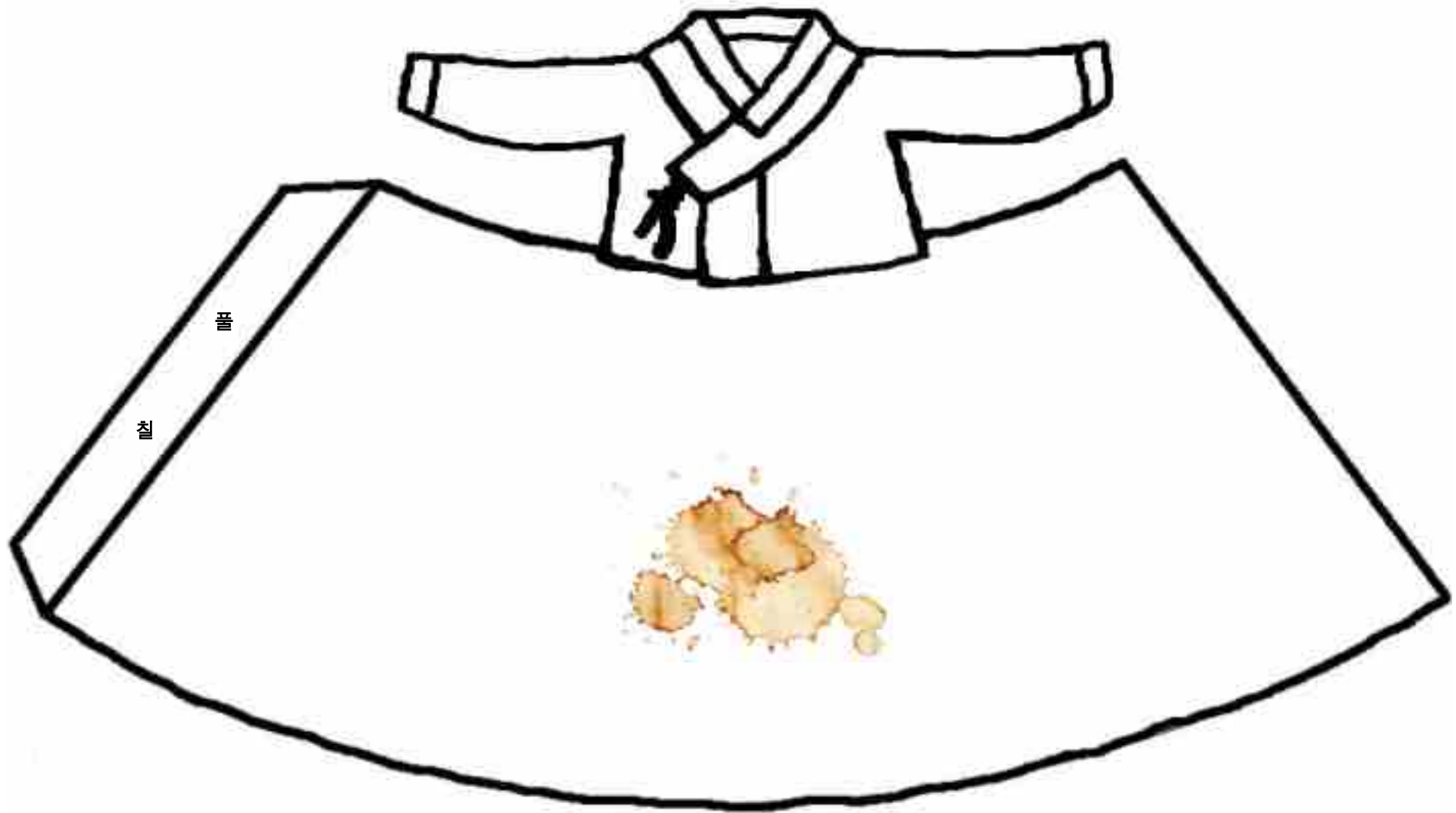
### 신사임당의 지혜를 따라 그려 봅시다.

\* 신사임당이 얼룩진 치마에 포도 그림을 그려 곤란에 처한 부인을 도운 것과 같이 우리도 얼룩을 감추는 멋진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려봅시다.

1. 한복 전개도를 예쁘게 색칠합니다.
2. 조선 중기의 무늬나 한복 색깔을 참고하세요.
3. 치마에 있는 얼룩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아요.
4. 그림을 완성한 후, 치마의 바탕색도 칠해보세요.
5. 테두리선을 오린 후, 풀칠하여 한복 완성!

#### 만드는 방법 영상보기





## 활용 도서 목록

- 지식의 미술관 이주한 지음. 아트박스
- 서양미술사 E.H. 고프리치 지음. 예경.
- 서양미술사 H.W. 젠슨 & A.F. 젠슨 지음. 미진사.
-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고흐지음. 이승재 번역. 더 모던 출판사
- 사임당 이영호 지음. 씽크뱅크 출판사.
- 심심남매 우리 그림에 빠지다 이종수 지음. 위즈덤하우스

※ 위 도서는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이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을 품은 독서 -

# 명작[화가]와 함께하는 책이야기

## 스토리 제작

김인정 | 오마초등학교 수석교사

## 집필

김인정 | 오마초등학교 수석교사

조진희 | 금계초등학교 교사

양승지 | 고양동산초등학교 교사

안현정 |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영숙 | 원중초등학교 교사

황라미 | 통일초등학교 교사

김현정 | 삼송초등학교 교사

## 기획

발행: 2023년 8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기획: 융합교육정책과 과장 이현숙

예술·독서교육담당 장학관 이대성

장학사 안현정

장학사 이해현

장학사 이은주

장학사 원경미

경기도교육청 독서인문교육정책실행연구회

※ 이 자료의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 및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 예술을 품은 독서 -

# 명작[화가]와 함께하는 책이야기

